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가라지 비유

(마 13:24-30, 36-43)

The Parable of the Weeds

(Matt. 13:24-30, 36-43)

분명 좋은씨를 뿌린 밭에 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입니다(26절). 여기 가라지는 잡풀이라는 뜻이 아니고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독보리는 보리처럼 생겼지만 먹으면 배탈도 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물입니다.

밭에 가라지들이 자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되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a good seed was sowed in a field, it sprouted and formed heads, then, the weeds also appeared (v. 26). Here, the weeds do not mean common weeds but poisonous wheat. The shape of poisonous wheat looks like an edible wheat. If we eat it, we have a stomachache. It is a fatal poisonous substance that can possibly cause a person to lose their life in a severe situation.

The people who saw the weeds grow in the field were surprised and asked owner to pull out the weeds. But he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out the wheat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The owner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is Jesus and the field is the world. A good seed is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weeds are the wicked. The enemies who sowed the weeds are Satan and his workers, and at the time of harvest, they are the end of the world, but the harvesters are angels.

1.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밭에 오직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사람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악한 백성, 곧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또 밭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며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고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주인이 이르도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2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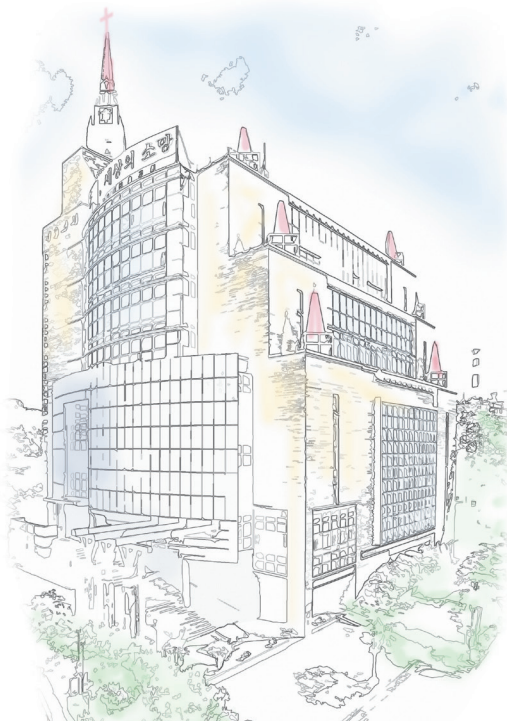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해서 가라지를 뽑다보면 알곡도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하신 이유는 추수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세상 끝에는 심판과 상급이 분명히 나뉘진다

세상 끝은 분명히 오고 그때에는 모든 알곡들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43절)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신음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은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grains and the weeds co-exist in the world

God created the world and sowed God's people, only good seeds in his beautiful field.

And there, the devil Satan scattered the seeds of the devil's people, the weeds over the field. That is why this world is the place where grains and the weeds are mixed and live together.

The field also means the Church, and there, the grains and the weeds grow together and mix together. There is not a complete one in a Church in this world. There was a couple of Ananias and Sapphira in the early church, and there were also Judah Iscariot among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2. It is not our work to pull out the weeds

"The owner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v. 29).

In our opinion, we want to pull out the weeds right away. But Jesus told them to leave as it was, because while they were pulling out the weeds, they might root up the wheat. Because the weeds have a stronger root than the wheat, while they pull it out, they may root up the wheat. The reason why Jesus told them that they should not pull out the weeds is that the harvest, in other words, the time of judgment will come.

3. The reward of judgment will clearly be distributed at the end of the world

When the end of the world should clearly come, all grain and the weeds will be distributed without a hitch, as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v. 43). Amidst lots of injury, pain, and groan in the world, you never forget a covenant with God, and work hard for the Lord. Those who are patient with belief to the end, have a victory,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our Father with Jesus Christ.

My beloved Christians,

You never forget that the grains and the weeds are mixed together in the world where we live. Therefore, in any cases, when you are frustrated, rely on only God's word, and have the victory to the end. By shining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wonderful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3대 장로 3명, 14대 집사 59명, 13대 권사 85명 피택

5월18일(주) 공동의회에서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된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13대 장로 3명, 14대 집사 59명, 13대 권사 85명이 각각 선출되었다.(명단은 본지 2면, 3면 참조)

한편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이들을 위한 교육이 5

월24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이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2014 흥해 작전」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 강사: 박노철 목사

6월 6일(금)~25일(수) 새벽 5:00~6:00

-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 다음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흥해를 가르자!
-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2014년 흥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 11:16,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기간은 6월 6일(금) ~ 6월 25일(수)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다.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인 기도제목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우리 앞의 흥해를 가르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 있는 흥해를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 4.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서울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 5.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인 가정, 일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6.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 7.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새벽마다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회신학대학교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지난 5월 23일(금) 오전 10:30에 우리교회 소속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과 함께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였으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를, 오정수 장로의 기도, 노문환 장로의 성경봉독,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등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었다.



사진: 이준태 집사

제13대 피택장로 명단



최형열



김금준



최차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제14대 피택집사 명단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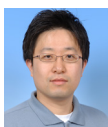
강재호2



강재훈



김규석



김도연



김동진1



김선석



김영규1



김영선1



김승기



김종근



김중우



김주만



제13대 피택권사 명단 (가나다 순)





한국기독교학술원 제45회 학술원공개세미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을 목표로 기도한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제45회 학술원공개세미나가 지난 5월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반도 자유, 정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편집자 주)

한반도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소원이고 민족사와 세계사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통일의 당위성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민족 분단을 우리의 죄값으로 인식하고 기도와 회개와 거듭남의 자세로 통일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통일이 되기 전 먼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며 성경적 자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교회의 역량을 집중시킨다.

우리는 의와 평화가 임 맞추는 나라를 추구한다. 벨기세덱의 이름의 뜻처럼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에 평강의 왕이 되어야 하듯 의가 없는 거짓평화는 엄격히 거부하고, 우리는 평화의 실천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인 신앙, 거주, 집회, 언론 등의 자유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정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peace with God)을 이루어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를 누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이 국내외적 상황 변화를 통해 가까워졌음을 확인한다. 남북한의 국력격차, 북한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북한의 경제파탄으로 인한 굶주림, 주민의 박해와 억눌림, 중국의 부담감증폭, 미국의 위기의식 등이 북한 붕괴의 다이내마이트들이다. 국제법상 반인권 범죄 국가로 지목된 북한은 북한체제 변화 없이 인권개선의 희망이 없다는 UN북한인권위의 보고서 역시 북한정권 붕괴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우리는 통일 후 이념적 갈등, 사회적, 언어, 교육철학의 차이, 도덕규범의 차이로 심한 갈등이 예견된



다. 그 갈등 해결의 책임은 기독교인들이 져야 한다. 그것을 해결 못 하면 통일이 되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굶주림을 방지하겠다는 회피가 되는 것이므로 어려워도 통일 이외 대안이 없다. 우리는 갈등 해소를 위해 도덕적 질서를 회복시키고 황금만능주의, 바알신 우상을 제거하고 빈곤, 계층, 지역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이 교회개혁과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위의 갈등 해소 책임을 교회가 짐으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교회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력통일은 실패로 끝난다는 성경의 교훈을 믿는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 위한 전작권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연기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한국의 기본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지 않도록 해소 이해시켜야 한다. 지역안보 역학구도가 강대국 위주의 협력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강대국에만 의존치 말고 북한 억제 수단을 우리나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유사시 북한지역 관찰권을 비롯한 관련 문제들을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 드릴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므로 통일외교를 확대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한국교회는 국제적 존경과 신뢰를 쌓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 모든 일의 근저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의 실천을 위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만 가능함을 믿고 우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재) 한국기독교학술원

남선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오늘 찬양예배는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린다. 남선교회는 복음전파에 더욱 협력하여 솔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모든 남자 성도들은 이에 해당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활동 부탁드린다.

강사: 차인홍 교수 다.

오늘 헌신예배 초청 강사는 차인홍 교수이다. 차인홍 교수는 음악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교(Wright State University)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차인홍 교수 약력 -

- 오하이오주 신시내티(Cincinnati) 대학
- 뉴욕 시립대학교 브록클린(CUNY-Brooklyn) 대학 석사
- 싸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립 대학 박사 (지휘전공)
- 해외유공동포 대통령상 수상
- K.B.S 수요기획, 글로벌성공시대 다큐멘터리 방영
- 저서: 저서전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2003) (토기장이 출판사)/ "황제어는 나의 날개" 출판(2012) (도서출판 마음과생각)
- 음반: 러시아 샹뜨 베데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차인홍지휘) Sony/BMG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5(주일)은혜와 선물교회 창립예배에서 설교한다. 26(월)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을 한다. 27(화)한국기독교학술원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빌립선교회 리브기전도회(5.25)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6.1)

■ 금주의 식사 : 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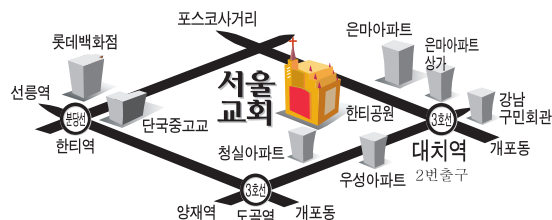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피택된 한azon직분자들이 임직 받는 순간까지 훈련을 잘 받아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2. 6.4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며 신실한 지역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3. "본향을 가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이번 흥해작전이 큰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